

9/15/19

설교 제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2 장 13-17 절

(막 12: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막 12:14)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막 12: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막 12: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막 12:1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그 비유가 자신들에 대한 책망인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심히 분개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더욱 간교한 책략을 세웁니다.

저들은 바리새파와 헤롯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할 질문들을 던져 논쟁을 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수님과 상대가 될 수가 없지요.

논쟁 후 그들의 반응입니다.

(막 12:34)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논쟁을 이겼기에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논쟁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당원이 예수님과 벌린 논쟁은 당시 민감한 사항이었던 세금과 부활, 계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본문은 그 중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막 12: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유대교를 아주 철저히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당원들은 로마에 의해 지명되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분봉 왕 헤롯에게 붙어 충성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의를 가지고 있어 으르렁 대던 두 파가 예수를 죽이는 한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려 잡으려 야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교묘히 접근합니다.

(막 12:14)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마음에도 없는 아부성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부를 했던 그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꼬집어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는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유도하여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몰아 잡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아주 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내야 하는 세가 너무 과했다는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종의 세라고 볼 수 있는 소작료와 성전에 바치는 세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 등을 내야 했습니다.

소작농이 부담해야 하는 소작료는 보통 소출의 40%정도였으며 때로는 주인에 따라 소출의 50%까지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성전에 성전세, 십일조 등을 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소출에 대한 세금과 인두세, 통행세 등을 내야 했습니다.

소출세는 곡식은 소출의 10% 과실은 소출의 20%였습니다.

인두세는 14-65 세까지의 모든 주민이 내야하는 세로 한 사람 당 한 데나리온씩이었는데 이 세는 로마 황실로 들어갔습니다.

통행세는 물품을 가지고 항구나 성문 관문 등을 통과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로 물품 가격의 2~5% 정도 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보다 훨씬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소작농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의 생활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불만은 대단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죄인시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들 중 로마 황제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민족주의자적이고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당원들은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므로 이방 왕인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당원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념이 달라 함께 하지 않았던 두 파가 의기 투합하여 예수님께 나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리 없습니다.

(막 12: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외식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선하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스로 거룩한 척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무리들 중에 이런 간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인정했다고 해서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되어 체포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던지 간에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쯤되면 제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예수일지라도 빠져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막 12: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막 12:1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대목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고 세금으로 낼 돈, 즉 세금으로
낼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 22: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마 22: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 22: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마 22: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마 22: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용되던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이를 번역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아들, 지존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반감을 고려하여 유대 영토에서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지지 않은 다른 데나리온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라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에는 반드시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바로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그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일점일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은 이미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만지고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세를 내고 있었고 따라서 새삼스럽게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은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를 황제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황제의 통치권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면 황제가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고 이제 누구도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뒤이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ive to God what is God's)"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헌금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의 것인 것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황제에게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바침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느냐?"라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바치며 살고 있느냐?"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사십니까?

어려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이시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우리 모두 온전히 나 자신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